

지속가능한 전주 위해 ESG 경영 도입

다문화가족 위한 임신출산교실 진행

시, 기업 의사결정 시 환경·사회책임 최우선 반영... 민관협력 활성화 정책 방안 모색 위한 포럼 가져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 의사결정 시 환경과 사회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8일 사회혁신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은행,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200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ESG와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사회혁신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은행,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200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ESG와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기업 등의 의사결정시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기존 전통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앞다퉈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상황에서 성공적인 ESG 실현을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성을 가진 ESG관점에서 민관협력

활성과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ESG의 최종 목표인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왜 ESG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는 ESG의 정의와 운영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ESG 관점의 민관협력 국내외 사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 황성진

쏘셀공작소 대표는 "ESG 또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넥스트 헬리시티 대학교수는 'ESG를 기반으로 한 전주시민의 내재화 제안' 주제의 발제를 통해 "ESG 실현을 위해서는 전주시민의 통찰로 ESG를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주다움"으로써 ESG를 실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환경과 사회, 윤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ESG는 단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모색해야 나아가할 공통의 과제"라며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환경과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진보된 혁신사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쏠셀공작소가 주관하고 전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공동 후원했으며, 사회혁신전주와 전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고민숙 강사 초청

전주시가 다문화가족들의 임신과 출산 준비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지난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임신·출산을 앞둔 전주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교실인 '오마이베이비'를 개최했다.

인구보건협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국제모유수유 전문가인 고민숙 강사가 초청돼 예비부모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다양한 지식과 육아 노하우를 전달했다.

고 강사는 지난 11일 열린 첫 교육에서는 ▲신생아 관찰하기 ▲기저귀 갈기 ▲트립사기 ▲싸개 사용하기 ▲신생아 목욕시키기 ▲신생아 달래기 ▲마사지하기 등 신생아를 돌보는 방

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2차 교육에서는 ▲모유생성원리 ▲수유방법 ▲수유자세 ▲손척요방법 등 신생아 모유수유에 대한 방법을 교육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한국사회 적응과 출산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신출산 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황방산 진입로 정비 추진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에서 황방산으로 진입하는 등산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는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폭이 좁고 비포장 상태의 황방산 진입로를 폭 6m로 확장·정비하는 '황방산 진입로 정비사업'을 다음 달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구는 황방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진입로를 정비하고 야간 안전 대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도 설치하고 있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도 꼼꼼히 설치하고 있다.

구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인 오는 6월까지 모든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후 황방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진입로 인접 토지주들과 서고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 구간을 결정했으며, 토지(17필지, 5.173㎡)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10월에 공사에 착수했다.

장병호 덕진구청장은 "진입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를 나눠준 토지주와 공사로 인한 불편을 참아주고 계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맑은 시민들이 황방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근현대 전주사람 추억 담은 생활유물·사진 공유

전주역사박물관, 10월 3일까지 '전주 근현대 생활유물 기획전' 진행

해방 이후 전주사람들의 생활상과 추억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역사박물관(강숙희 관장)은 5월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근현대 전주사람들이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 등이 담긴 사진을 통해 전주를 추억할 수 있는 '전주 근현대 생활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근현대 전주의 역사와 전주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생활유물과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공감대와 추억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시는 크게 ▲1부 '그때를 그리다' ▲2부 '생업에 종사하다' ▲3부 '살림살이를 가꾸다'의 3가지로 구성됐으며, 근현대 전주와 전주사람

들의 일상을 담고 있는 유물과 옛 사진 90여 점이 전시된다.

먼저 1부 '그때를 그리다'는 전주 사람들이 모이던 거리와 건물, 행사 등 도시의 풍경을 사진을 통해 보여 주는데, ▲전주의 풍경을 담고 있는 사진 ▲제18회 풍남제포스터 ▲전주에서 열렸던 전국체육대회 기념품(44회, 61회, 72회) ▲쌍방울 레이더스 사인볼과 입장권 등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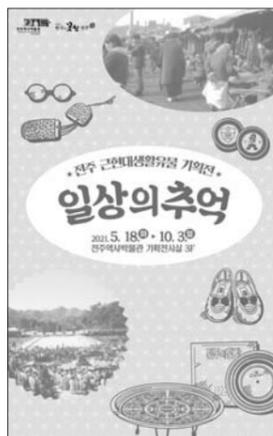
2부 '생업에 종사하다'는 전주사람들의 바쁜 일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지난 1960년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변화한 일터와 상인들로 북적였던 시장과 배움의 열의가 가득했던 학교 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백암메리야스공장에서 사용했던 미싱 ▲되와 말, 주판 등 시장 상인들의 물건 ▲교과서와 각종 학용품 등이 전시된다.

끝으로 3부 '살림살이를 가꾸다'에서는 ▲아침저녁 뿔레방망이 소리가 들렸던 전주천 빨래터 ▲단오날이면 사람들이 북적였던 덕진연못의 풍경 ▲70년대 전주 서민의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박병익 군의 일기장 등 근현대 전주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갖가지 생활물건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실 내부에는 근현대 학교 교실로 꾸민 공간이 마련돼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던 책걸상과 교탁, 풍금 등도 경험할 수 있어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과 색다른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jonjuseum.org)를 확인하거나 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8-648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역사박물관은 5월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근현대 전주사람들이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 등이 담긴 사진을 통해 전주를 추억할 수 있는 '전주 근현대 생활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전주시 덕진구, 장마철 대비 하천 안전시설 보강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가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 주변 시설물을 보강기로 했다.

덕진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억 2,6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장마철 이전까지 하가지구 세월교와 송천동 오송제 주변 하천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먼저 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세월교(하가휴먼빌~여울초사이에) 이달 중 하천수위감지 CCTV와 원격 통행차단시설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세월교가 여울초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만큼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범람하면서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던 송천동 오송제에 대해서는 구거(인공수로)에 쌓인 토사를 준설해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제방(석축) 보강 시설을 통해 장마철 범람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장병호 덕진구청장은 "지나해와 같은 유례없는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도록 세월교 인근 보수와 오송제 석축 보강을 포함해 관내 주요 재난위험 지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여름철 주민분들이 재난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